

이통3사, 5G 투자로 떨어진 실적 5G로 반등 나선다

SKT 영업이익 1.2조... 21.8% ↓
LGU+ 11.5% 줄어든 7309억
KT 아현지사 화재 영향 불가피

무선수익 부진, 5G 투자 직격타
미디어·5G 등 신사업 통해 돌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I.

등 신사업을 통해 성장 정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SK텔레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딜레마'에 빠졌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증가로 무선수익 사업 부진에 빠진데 이어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가 본격화되며 직격타를 맞았다. LG유플러스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도 같은 기간 21.8%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실적 하락에 빠졌다. 다만, 5G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미디어

출 16조8740억원, 영업이익 1조2018억원, 순이익 3조13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21.8%씩 감소했다. 순이익은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에 따라 17.9% 증가한 수치다.

연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와 통신 시장 포화 상태로 주력인 무선수익 사업이 주춤하며,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무선수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11.5% 감소한 영업이익 730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또한 12조 1251억원으로 같은 기간 1.3% 줄었다.

2월 12일 실적발표를 앞둔 KT는 무선사업 매출 감소와 함께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망 장애 보상 등 비용 부담까지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통신사의 부진한 성적표는 2017년

9월 25% 선택약정 가입자가 누적되고, 할인 폭이 큰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동통신3사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실적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SK텔레콤의 미디어 및 보안사업은 지난해 4·4분기 매출 4조3517억원을 달성해 전 분기 대비 3.9% 증가했다. 인터넷TV(IP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473만명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옥수수와 폭(POOQ)을 통합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육성해 올 한 해 외연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전년 대비 2.8% 줄어든 5조4150억원을 기록한 무선수익과 달리 유선수익은 홈미디어 수익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5.2% 늘어난 3조9998억

원을 달성했다. 홈미디어 수익만 떼어놓고 보면,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12.5% 상승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고 유아서비스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에 AR·AI 기능 및 유아·부모 전용 콘텐츠를 강화한 2.0 버전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5G를 통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5G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도 이동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휴대폰을 이용하는 5G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업대상 신규 서비스 매출이 더해지면 5G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 CNS-AWS, 금융 클라우드 사업 확대

5개 금융산업별 모델 공동 개발

LG CNS가 금융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금융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6개 금융산업별(은행, 카드, 생보, 손보, 증권, 캐피탈)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한국형 금융 클라우드 모델'을 공동 개발했다.

한국형 금융 클라우드 모델은 금융 업무 특성, IT 정책 및 관련 국내 법·규제를 반영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다.

예를 들어 비대면채널, 자산운용, 재무·리스크 관리와 같은 전체 금융업무의 공통영역과 함께 은행은 여수신·외환·대행 업무, 카드는 발급·정산 업무, 보험은 대면채널, 신계약·유지·지급 업무 등 각 분야에 업무 특성을 반영한 클라우드 모델이다.

양사가 만든 한국형 금융 클라우드 모델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이다.

개인정보 등 중요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계정계와 같은 영역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거래 기록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정보계와 같은 영역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한다.

또한 양사는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는 금융사들이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전반의 서비스도 공동으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클라우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12월, 구체적인 도입 방법 및 예시를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데이터는 직접 해당 금융사 전산 서버로만 관리하고, 외부 업체 서버에 위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의 정보 안전 기준을 충족한 IT서비스기업은 은행 등 금융사의 고객 개인신용정보 등을 위탁해 저장,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금융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양사는 상호 협력해 금융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상선, 차세대 해운물류시스템 개발 착수

프로젝트 사업자에 오라클 선정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IT시스템
내년 하반기 마무리 후 오픈 예정

현대상선이 2020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IT시스템 '뉴-가우스(New-GAUS 2020·가칭)' 개발을 본격화한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이 프로젝트 사업자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Oracle)을 선정해 이어 최근 본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뉴-가우스'는 현대상선이 독자 개발한 해운물류시스템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가우스(GAUS)'를 클라우드 기반의 IT시스템으로 신규 구축하는 등 효율성과 편리성을 한 차원 높이는 프로젝트다. 운항정보, 계약 및 예약관리 등 선박관련 정보를 비롯해, 인사, 관리, 운영 등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독자 IT시스템이다.

현대상선과 오라클은 컨테이너 및 벌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해운물류시스템을 비롯한 전사의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클라우드 전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상선은 새 시스템이 기존 자체 서버 운영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외 국외에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글로벌 해운업의 변화 트렌드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동시에 '저비용 고효율의 대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경쟁이 심화된 현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IT프런티어 해운선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현대상선은 "해운물류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함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항 안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타 글로벌 선사 및 정부주도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참여로 데이터 표준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7월부터 설계를 진행해 왔으며, 독자 개발방식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끝내고 고객들에게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토요타코리아 '캠리 하이브리드 LE' 판매

토요타코리아가 지난 30일부터 '캠리 하이브리드 LE' 판매를 시작했다.

31일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캠리 하이브리드 LE는 '퍼포먼스, 스타일, 안전성'이라는 캠리 하이브리드의 강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부 옵션을 조정해 부가세 포함 374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TNGA) 플랫폼을 통해 완성된 차체강성, 저중심설계를 바탕으로 주행 안정성과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2.5리터 다이내믹 포스 엔진에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의 삼박자를 겸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결합으로 뛰어난 가속력은 그대로 유지하며 복합 연비 리터 당 17.5km(도심 17.8km, 고속 17.2km) 연비까지 한번에 만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LE' /토요타 코리아

나볼 수 있다. 또한 토요타의 예방 안전 시스템인 TSS와 10 SRS에어백도 기본 장착돼 있다.

토요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1명)과 약 70만원 상당의 커피쿠폰(2명), 약 50만원 상당의 영화예매권(3명), 참가상(200명)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차 '노후트럭 교체' 최대 400만원 지원

연말까지 신차 교체 프로모션

현대자동차가 노후 트럭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는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 지원하는 '현대차 노후트럭 신차 교체 지원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에 발맞춰 실시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가스 5등급의 트럭과 2016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후 트럭 보유 고객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마이티 50만원 ▲메가트럭 120만



원 ▲대형 트럭(뉴파워트럭, 엑시언트) 300만~40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 또는 4.1~4.5% 저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정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과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다. 정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차종과 연식에 따른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후 경유차량 교체 정책에 발맞추고 신차 교체 혜택을 통해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3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